

중동의 봄, 선교의 확장으로 이어질까

긍정적 영향 가능성 높으나 신중한 접근 필요

42년간 권력투쟁했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그의 죽음으로 결국 막을 내렸다.

이로써 중동의 봄은 더욱 중동 지역의 개혁, 개방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민주화의 열망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동에 거세게 불어오는 봄바람이 선교에 있어서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운동 확산이 중동 선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새롭게 수립되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격변의 시기에 퍼지는 불안감은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을 지원하는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순교자

의목소리(VOM)' 대표 토드 넬슨도 "불안이 고조될수록 사람들 안에서는 영적인 질문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는 정말 교회가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선교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상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무바라크 정권이 몰락한 이집트에서는 독재정권 아래서 놀려 있던 종교 갈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것이 유희사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5월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의 유희 사태로 1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에는 종교차별에 시위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 의해 24명 사망하고 4백여명 가까이 부상당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중동 선교에 대해 장미빛 전망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 쓰나미: 오바마 시대의 미국과 이스라엘(The Islamic Tsunami: Israel and America in the Age of Obama)'의 저자 데이빗 루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속된 이집트 유희사태를 볼 때 '중동의 봄'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그 지역 소수 종교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격한 이슬람화 운동, 즉 '이슬람 쓰나미'였다"고 주장했다.

루빈은 최근 한 미국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집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라도록 허용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듯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넬슨은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교회는 더욱 희생을 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기는 교회 뿐 아니라 모두에게 안전하지 못한 시기"라며 "교회는 오랫동안 많은 고난을 견뎌 왔고 그 때마다 이겨냈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 발흥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지만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도 21일 성명을 통해 "42년간 카다피의 철권통치 속에 대다수 리비아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이제 리비아 국민은 모든 적대감을 버리고 국가 재건에 임해야 한다. 전 세계 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리비아 과도정부와 국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자"고 밝힌 바 있다.

박대용 기자

INTERVIEW

하나님이 한인을 미국에 보낸 것

바로 이때를 위함 아닌가

미국 속의 한인교회

이제 미국 깨우는 일에

하나로 연합할 때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목사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 안의 목회와 교회 밖의 목회, 이 두가지의 비중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는 제사장의 사명과 사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선지자의 사명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두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이 둘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점이다.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목사는 남가주 교계에 인정하는 일꾼이다. 십수년 전 LA 마라톤 요일 변경 운동 당시부터 최근 SB48 법안 반대 운동까지 그의 사역들은 남가주 교계를 하나로 결집시켜 한인들의 목소리를 주류사회로 전달해 왔다.

그러나 그는 대사회적 참여 뿐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 본연의 사명에도 충실함을 기해 온 목회자로 평가받는다. 그가 부임 당시 30명 규모였던 미주평안교회가 그가 목회하는 22년동안 5백명 규모로 성장한 것이 좋은 예다.

남가주에서 목회하는 동안 교협 회장 혹은 목사회장 직책을 맡아 달라는 교계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고 끝내 "그런 자리는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맡아야 한다. 저는 뒤에서 돕는 일을 하겠다"며 고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남가주에서 이름난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와 한국의 한 대형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도 "내 사명은 이곳이다"라며 작은 이민교회를 고집했던 것이다.

미주평안교회에서 송정명 목사를 만나 그의 목회와 사회 참여에 관해 인터뷰했다.

현재 그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아 전미주 교협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며 LA성서회운동 대표회장도 맡고 있다. 앞에 나서는 자리라면 한 사교 마다했던 그가 겸직된 단체의 대표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본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레이저비전 월드(대표 양철승)에서 한인교회의 미디어 발전을 도모하고자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미주복음방송과 본지와 함께 음향 영상 조명 무료 세미나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음향, 영상, 조명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룸과 함께 실제 교회 미디어 사업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질문을 통해 풀어갔다. 세미나는 레이저비전의 김영덕 부장과 이보혁 과장의 강연, 김성림 실장의 질의 응답의 시간으로 이뤄졌다.

두 시간이 넘는 세미나를 마친 후 박세현 남가주 교협 총무는 "교회에서 전문성 없이 영상이나, 녹음 등의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이 잘못될 수 있고, 재정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회에서 조명을 잘못 사용하면 강단에 선 사역자가 자칫 잘못하면 녹내장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했다. 이곳에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목회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예전교회회의 구버올 선교사는 "원스톱으로 음향·영상·조명, 세 파트를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디어 제품을 구입, 사용할 때 아무래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레이저비전 월드 관계자들

교회 위한 무료 음향 영상 조명 세미나

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에게 진단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레이저비전은 음향, 영상, 조명 장비 판매는 물론, 전반적인 시스템 설

계 및 시공, 교육과 애프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녹음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다. 1991년부터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

해 왔으며, 그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323-730-5050

토마스 맹 기자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213-386-5500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877-580-2424
전화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친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엔프렐LED가 당신의 눈을 선명하고 환하게 밝혀 드립니다

Flexible LED desk lamp

- LTK-1600WIDE ▲
- LTK-1500K ▲
- LTK-1100L ▲

LED 램프/ 눈부심 방지 커버
초대형 비구면 다초점 렌즈
보는 각도와 상관없이 선명하게 왜곡없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여 피로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높낮이, 방향 각도 조절부

추천의 글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전력도 덜 소모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박희민 목사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 Torrance * Good 네이비스 (310) 326-6666
* 김스전기 (213) 386-4882 *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info@crovergreen.com
crover 323-588-7277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남가주 교회 연합과 타인종 연대에 헌신해 온 송정명 목사

잠든 청교도의 나라, 한인이 깨우자



담 등 한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도 반납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지만 성도들이 저를 찾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놓치고 대외적 일만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한인교회의 결집 뿐 아니라 한인과 타인종 커뮤니티의 연합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타인종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눈 뜨신 계기가 있으니까?

마라톤 요일 변경 운동을 하다 보니 우리 한인들이 주류사회에서 볼 때는 그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자 중에 소수자이죠. 정치인들을 만나면 그들은 겉으로는 한인 사회를 존중한다고 하고 목사들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 속에 있는 한인들의 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타인종들과 연합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백인 목사와 흑인 목사, 라티노 목사를 식사에 초대해 끊임없이 대화하며 공감대를 만들어 갔

에서 시의원들을 면담하고자 하면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니 3-4명이 한번에 면담할 정도로 파위가 있습니다. 표 때문입니다.

마라톤 요일 변경 운동을 하면서 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도 동참하게 됐고 유대인 탐비들도 나왔습니다. 무슬림들도 하나 됐습니다.

종교와 인종이 다른 우리들이 공감대를 갖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자인 한인에 대한 주류사회의 시선은 싸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SB48 반대운동을 하면서 주류사회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교회보다 앞서서서서 한인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며 서명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한인들과 손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증거합니다.

이번에 55만표에서 7천표가 미달되며 비록 실패했지만 한인들의 실력을 주류사회에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사회가 한인들을 주목한다고 하지만 한인교회끼리는 연합이 잘 안 된다는 뼈아픈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라톤 반대 운동의 경우는 좀 힘이 들었습니다. 마라톤 시즌이 될 때만 교회들이 반짝 관심을 갖고 그 후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잊어 버리며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SB48반대운동도 한인교회의 참여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에 동참하면서 제가 한인교회들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리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 운동을 모르는 분도 계셨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한인교회가 연합할 때 놀라운 일을 해 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두가지 사역을 균형감 있게 감당하고 있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특별한 소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수적 신학교인 성결교단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결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구원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구령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성결교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목회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하고 영혼 구원만 외치는 목회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영혼 구원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지만 동시에 사회적 이슈에도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후 저는 안과 밖의 문제를 모두 챙기는 균형있는 목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목회 35년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성경적 일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마라톤 대회나 동성애 공립교육 등에 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문화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마치 교회 밖의 대외적 일로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위한 제사장, 사회 위한 선지자 역할 모두 중요 타인종 커뮤니티와 연대해 미국 변화시켜야

주일 마라톤 반대 운동, SB48반대운동으로 한인들 향한 주류사회 기대 높아져

사회적 운동을 하는 목사님은 많 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주평안교회는 어떠 한가요?

목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 도리만 지킨다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밖으로만 다닌다"고 불평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 새벽기도를 꼬박꼬박 드리고 심방이나 상

습니다. 한인타운 안에는 그리스정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이곳은 교회 안에 정치 특보란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정치적 파위가 막강합니다. 한인교계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토마스맹 광고국장: 이인규
지사: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그래픽,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 정부 전액보조금(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오전, 오후, 저녁
-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Advice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방문비자(B1,B2)를 학생비자(F-1)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818.382.6000

Bus 20원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상담: 그레이스 (Grace)

- 왜 소수민족인 우리가 미국사회의 일에 참여해야 하는지는 물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미국 속의 한인이라는 특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자란 커뮤니티입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때 5만4천명 미군의 피를 한국 땅에 뿌렸습니다. 우리에게 은인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들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마움을 잊어서 안되겠지요. 도움을 받아 놓고 모른 척하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되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게는 교회부터 오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에 타인종들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습니다. 당장에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청소도 해야 하고 번거로움이 있지만 산술적 계산으로 목회하는 교회 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 교회, 네 교회를 따지면서 자신만 생각하는 목회도 안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미국을 깨우는 일입니다. 과거의 선교는 물질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영적으로 부강한 이들이 영적으로 잠든 이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때입니다. 저는 하

나남께서 우리 한민족을 영적으로 침체된 미국 땅에 보내서 그들을 깨우게 하시는 선교사로 삼았다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쇠잔해 가는 이 땅을 깨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미기총 회장에 취임하며 대각성 기도운동을 전 미주에 확산시키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베델한인교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담임인 손인식 목사님께서 전미주 교협 회장을 초대해 비전을 함께 나눔을 통해 전미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베델한인교회가 위

백인교회들, 흑인교회들, 라티노교회들, 구라과 이민자 교회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 기도회에서 주축은 아시아 안 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가장 신앙이 뜨거운 한인교회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10만명이 모이는 이 기도회에서 우리 한인이 1만명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기도회 시간 중 오후 6시 15분부터 2시간을 한인들이 배정받아 2-30명의 한인 목회자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니다. 양과 목자의 사이에 이런 배이 있으면 어떻게 성도들의 지친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에게 상처를 호소하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는 겸손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국교회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숫적 증가가 목사로 하여금 권위주의를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기총의 활동이 최근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목회를 하며 여러 단체에서 대표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저는 그것을 고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몇 지역의 교협 회장들께서 제게 요청을 해 오신 데 대해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 일을 맡고 보니 참 할 일이 많고 광범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에 모든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회장이신 장석진 목사님께서 미기총이 전미주 교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된 후, 미기총이 대각성 기도회 확산 운동을 하면서 전 미주를 아우르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5개 교협 회장이 참여하면서 미주 교협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됐습니다.

전 미주 한인교회 연합해 미국 변화 주도할 비전 꿈꿔 로즈볼 기도회 등 적극적 참여

치한 일바인 지역의 이름을 따 일바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주 대각성 운동을 향한 우리의 뜻을 알릴 계획입니다. 미기총은 11.120.11 기도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1일 성경 1장 읽기, 1일 20분 기도하기, 1일 1가지 선행하기 등이 기도운동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 크리스천인 우리가 미국사회의 기독교 가치를 수호해 가자는 것입니다. 또 오는 2011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는 로즈볼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교회 목사들이 이 일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한인들도 동참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모하는 이런 일에 교회가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목회가 사회 참여에 대한 목사의 시각을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간 교회안에만 갇힌 목회를 하기 때문일까요? 사회 참여의 기본 조건은 섬김입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의 군림적 목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 목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평신도들이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조차 없는 큰 권위주의가 목사들 안에 있



미기총은 지금까지 총 36개 한인교회 교협이 미주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계속 연합의 물꼬를 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한인교회의 역할을 찾아 가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연합의 물결에 힘입어 동부, 남부, 북부 지역의 교협 회장들을 만나면서 미기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미기총이 병실공히 4천2백 한인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경우도 우리 미기총과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도 하나로 연합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민자 102명 가운데 50명이 크리스천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고된 노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교회를 짓는 일부 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인사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땅에 주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들도 초기 이민자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잃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저 우리가 세기를 맛있게 먹고 배불리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만을 위해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가졌던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미국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해서 한인사회를 변화시키고 미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의 동참과 기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민교회의 선교적 중요성에 관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1백년 전 한인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김준형 기자



미기총을 구성하고 있는 전국 교협 회장들이 최근 베델한인교회에 모여 미국 대각성에 관해 회의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전철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서비스 KEVIN YOO. 213.761.9990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무료상담: 213-503-6897

Sae Arc 부의별과. 목(경부) 노모 양하는 할아버지의 흐름병. 통상부. 위양. 발. 하리. Toll Free: 888.516.2291

PAUL BIBLE COLLEGE. 성경 66권 전체. 성경적 상담. 바이블 동서남북. 원어 공부.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입학 자격.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십일조, 60년대 이후 최저 기록 미국교인들 수입의 3%만 헌금

교회 유지에 지역사회 활동 6배 지출

미국 교회의 십일조 비율이 1960년대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기독교 리서치 단체인 엠프티톰(Empty Tom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교인들은 수입의 10%가 아닌 평균 2.38%만을 교회에 헌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8년부터 이어져 온 경제

위기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1960년대 이래 최저치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단체는 미 전역의 복음주의 교회와 장로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등 주류 개신교단 교회들을 위주로 조사를 벌였다. 한편, 십일조 감소에 따라 교회의

재정 운용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들이 교회 건물 유지나 교역자들이나 교인들을 돌보는 데 쓰는 비용은 선교나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에 쓰는 비용의 약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1960년대 이래로 교회가

내부를 위해 소비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엠프티톰의 실비아 콘츠발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교인들이 십일조에 충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교회 역시 '주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현정 기자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영의 딸' 구출 시민네트워크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인권 상징된 통영의 딸 구명 여론, 전 세계 확산

'통영의 딸'이 북한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아이콘(icon)'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영의 딸'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가 북한 대남 공작부서의 유인작전에 포섭된 남편 때문에 입북한 후 구급돼 있는 통영 출생 신숙자 여사와 두 딸 해원·규원 양을 가리킨다.

'통영의 딸' 구출운동은 올해 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세이지)'이라는 대학교 북한인권 모임 주최로 인사동 화랑가에서 열린 <그곳에는 사람이 없다> 전시회로부터 본격 전개됐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다녀가는 등 많은 호응을 얻은 전시회는 신숙자 씨 고향인 통영 현대교회에서 다시 열리며 전국적인 구명운동이 시작됐다.

통영에서는 신숙자 씨의 재학 시절 동문들이 나섰고, 그 불길이 마산과 순천 등 남도를 중심으로 옮겨붙기 시작한 것. 이들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과 더불어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돌아온 장본인인 신씨 남편 오길남 씨가 본격 등장하면서 관심이 점점 높아졌고, 이들을 정치범수용소에서 목격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범국민적 운동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가 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언급한 통영 현대교회(담임 방수열 목사)와 함께 예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의 집회 '지저스 아미(Jesus Army)'에서 전시가 진행됐고, 각 교회에서는 통영의 딸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인권단체들도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청년들과 함께 매일 오후 늦은 시각까지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와 서명운동에 열입했다.

지난 2008년 서울평화상 수상에 빛나는 북한인권운동가 최순 살테 대표(북한자유연합)도 최근 한국을 찾아 두 차례 기도회를 인도하고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권유하는 등 '통영의 딸'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대학생 단체들과 70여곳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영의 딸' 구출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촛불집회와 거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힘들을 결집해 20일 오

전 11시 30분 '서울의 중심' 청계광장 입구에서는 '구출 통영의 딸 백만명서 청원운동' 유엔청원 국제대표단 발족 및 국제청원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백만명서 청원운동'을 통해 유엔을 대표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는 12월 10일 백만명의 간청이 담긴 엽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통영의 딸 모녀 생사확인고 생환을 위해 북한에 유엔특사를 파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뜻을 같이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및 유엔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이들의 생환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백만명서 청원운동 추진본부와 북한반인도범죄절제 국제연대(ICNK),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은 서울을 비롯해 뉴욕과 도쿄,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거리홍보 활동 및 인터넷 백만명서 청원운동(통영의딸.com)을 진행하고, 오는 11월 10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제정해 전세계 10여 개 북한대사관 및 대표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오길남 박사의 발인, 유엔 청원 국제캠페인을 위한 대형엽서 및 청원엽서 우체통 넣기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거리 음악회도 개최된다. '통영의 딸' 구출 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거리 음악회는 이날로 두번째를 맞는다. 소프라노 이수진, 피아니스트 고민지, 뮤지컬 엔터테이먼트, CCM가수 이계영 등이 출연한다.

북한인권단체들이 '통영의 딸'을 아이콘으로 삼은 데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타의에 의해 사형하는 가족과 떨어져 북한에 남겨진 정황이 정확히 '감제실종',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기타 반인도적 행위' 등 반인도범죄 항목에 해당돼 마땅히 생환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의 반인권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영의 딸'을 시작으로 납북자·국군포로 등과 최종적으로는 억압받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UMC 목회자 고령화 심각한 수준

55-72세 정회원 목회자 52% 차지, 평균연령도 역대 최고령

미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의 고령화와 함께 목회자들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달 말 발표된 '연합감리교회 교역자 연령층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에서 72세까지 정회원 목회자는 8,790명인데 비해, 35세 이하 목회자 숫자는 10년 전보다는 젊은 층의 정회원, 준회원, 본처목사의 숫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951명에 불과하다.

1995년부터 35세에서 55세 사이 정회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청장년 현역 정회원 비율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지난 6년 동안은 점차적인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연합감리교회 측은 최근 몇년간 교단 차원에서 젊은 목회자 발굴과 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세부터 26세까지 젊은이들이 사역자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익스플로레이션 행사나, 청장년사역자 발

굴팀 구성 등이 그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젊은 목회자 비율이 적은 이유에 대해 청장년사역자 발굴팀 로자리오 박사는 "젊은이들이 목회자들에게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것보다 먼저 다른 일을 해 보고 난 후 나중에 안수를 받으려 한다. 지금 고령의 목회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젊은이들이 소명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신학교 공부를 마쳐야 한다는 것과 신학교육을 받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회원이 되는 코스를 밟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신 조사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독특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합감리교회 내 목회자 연령층에 대한 보고서.

• 두 해 연속 55세부터 72세에 해당하는 총 정회원 비율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다. 2010년에는 이들의

비율이 모든 정회원의 50%이었으나 올해는 52%이다. 2000년에만 해도 이 연령층 비율은 현역 정회원의 30%에 불과했었다.

• 정회원의 평균 연령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55세이다.

• 35세 미만의 정회원 수는 2010년의 946명에서 2011년 951명으로 증가해 전체 정회원 수의 5.61%를 차지한다. 이는 십여 년 동안 가장 높은 35세 미만의 정회원 수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젊은 본처목사들이 455명으로 최근 어느 때보다 많이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본처목사의 6.2% 정도이다.

• 젊은 여성 교역자 비율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10년 전 남성 교역자 수가 여성 교역자 수보다 2:1로 더 많았다. 현재 35세 미만의 정회원 교역자 수에서 여성 교역자 수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해롤드 캠핑 휴거 예언 이번에도 역시?

해롤드 캠핑이 진짜 휴거일이라고 주장한 20일 21일도 무사히 지나갔다.

그는 당초 5월 21일 하남이 지구를 침판한다고 예언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날은 영적 휴거일이었으며 153일 후인 10월 21일 진짜 눈에 보이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었다.

5월 21일 예언 당시, 추종자들이 휴거를 준비하며 학업과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 자살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돼 큰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10월 21일 예언 때는 큰 사회적 동요가 없었다. 5월 21일 예언 실패로 인해 추종자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17년 전에는 9월 6일 종말론을 내세웠다가 종말이 이뤄지지 않자 계산 착오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계속 종말을 예언해 성도들이 미혹됨에 따라 미 기독교계는 경계를 요청한 바 있다.

남침례신학교 R. 엘버트 몰러 Jr. 총장은 캠핑의 주장을 '황당무계한 것'으로 일축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분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행하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웨스턴스터신학교 W. 로버트 갓포드 총장도 "캠핑의 주장은 이단에 가깝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캠핑은 지난 6월 뇌졸중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 그가 종말론을 퍼뜨려 왔던 패밀리라디오 사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김영신 기자


담임 폭행한 소망교회 부목사들 집행유예

소망교회 감지침 담임목사를 폭행한 부목사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최모(54) 전 부목사에게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에 가담한 조모(63) 전 부목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각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김목사에 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해 잡되게 처신해야 할 목사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초범이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이 장래 목사로서의 생

활에 흠이 되는 사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부목사는 새해 첫 주일이었던 지난 1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김 목사를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성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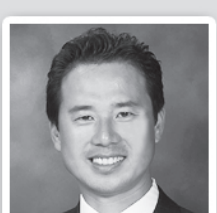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전인 치유 사명을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편입생 모집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우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 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경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뇨,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예약 전화 : 562-965-5112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창세기 1장 읽은 후 주체사상 버리고 탈북”

북한선교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

“북한 지하교회의 활발히 살아가는 역사한다”라는 주제로 북한선교세미나가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반석 목사(모퉁이돌 선교회 총무), 이삭 목사(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심주일 목사(부천 창조교회)가 강연을 펼쳤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심주일 목사는 북한정치장교 출신으로 지난 1998년에 탈북했다. 이후 그는 장로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심 목사는 “우연히 친한 친구로부터 성경책을 한 권 받았는데, 호기심으로 첫 페이지를 펼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도대체 이게 뭐야?’라는 강한 거부감이 들어 성경을 한동안 보지 않았지만, 자주 생각이 나서 성경을 펼쳐 들고 창세기 1장 26-28절을 읽고 무릎을 쳤다. 북한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사상의 기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가치있는 것



심주일 목사

이 주체사상인데 창세기 1장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했다.

심 목사는 매일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주극동방송을 매일 새벽 1시에서 5시까지 숨죽여 들었다.

이때 “떠나라”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돼 탈북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1998년 3월을 디데이로 잡고 압록강을 건너기 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앞으로 가기만 하라. 모든 일이 잘된다”고 한차례의 음성을 또 들

고 답대함으로 강을 건너 북한을 빠져 나왔다고 했다.

이후 그는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의 도움으로 양계장에서 일하며 기도한대로 이뤄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심주일 목사는 탈북자연합회와 탈북자대학생연합회, 탈북자실업인연합회 등을 섬기며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성경을 북한어로 번역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명백한 타문화권 선교이기 때문에 북한어 성경번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강연 말미에 “북한은 사단이 붙고 있는 (전쟁에서 말하면) 최후 저지선이다. 북한 선교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탈북자들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북한선교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지만 성경책과 방송전파, 물질은 전할 수 있다. 북한의 복음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믿을 것이 없을 때만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다. 반드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멩 기자

PHOTO NEWS



남가주 연세콰이어 정기연주회 열려

연세대학교 동문 모임인 남가주 연세콰이어 제 6회 정기연주회가 21일 저녁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남이 오시니, 남촌,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 울산 아가씨 등 총 20곡을 합창과 메조소프라노 독창, 테너 독창, 이중창으로 불렀다. 남가주 연세콰이어는 창단된 지 6년이 됐으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정기 연주회를 이어오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LA 남성선교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개최

LA 남성선교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성도여 다함께’란 주제로 23일 오후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LA 남성선교합창단(단장 유창로 장로)은 이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십자가 지신 그 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운 마음, 아침이슬, 시온성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등 총 15곡을 독창과 혼성합창으로 소화했다. 이 행사는 북한에 영양 치료제를 보급하는 의료 선교회 SAMcare를 돕는 후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예배는 개회기도에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말씀에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헌금기도에 박신철 목사(인앤드교회), 축도에 김영길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멩 기자

존 위클리프 정신 이어받아 전세계에 복음을

LA에 위치한 위클리프대학교는 존 위클리프의 정신에 의해서 개혁신앙을 가르치는 학교다.

14세기 존 위클리프는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성서를 통해 저들에게 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세 암흑기의 가장 큰 개혁의 선구자로서 성경을 보급해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노력했던 개척자로 알려졌다.

위클리프대학교는 초교파 신학교로 학위 과정은 B.A., M.Div., Th.M.,

D.Min. 등이 마련돼 있으며 총장 박두현 교수는 장로교단 출신으로 성서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교수진으로는 구약학에서 알려진 닥터 구테르츠 박사와 김용철 교수(조직신학), 이보민 교수(기독교 윤리학), 김명

도 교수(현대신학) 등 개혁 보수 신학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LA가 본교이며, 뉴욕, 아프리카, 인도, 네팔, 태국에도 캠퍼스가 세워져 있다.

박두현 총장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대학으로, 초교파적으로 나가서 다방면으로 선교와 교회 개척에 매진하는 졸업생들이 많다”며 “선교는 태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등으로 가서 현지 사람들을 공부시켜서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멩 기자



박두현 총장

GKYM 중보찬양집회 “차세대 리더가 소망”

글로벌선교교회에서 김동환 목사 설교

지난해 “더 높은 부르심”(Higher Calling)이란 주제로 미주 3천여 청소년들에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준 큰 반향을 일으킨 미주한인 청년학생 선교대회(GKYM Vision)가 올해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미동부 뉴욕, 미서부 LA,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를 위해 GKYM 중보찬양집회가 21일 저녁 8시에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김동환 목사(미주 KCCC대표)는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교회’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환 목사는 “차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곳곳에서 비어가는 미국교회와 전철을 한국교회도 밟게 될 수 있

다. 지금보다 10년에서 20년 후가 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세대 리더를 키워야 한다. 사사기 6:25 말씀에 보면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온다. 차세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심하고 겁많은 기드온이 구국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날 밤에 찾아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차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소명을 대면해

야 한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목사는 “오늘날 우리의 차세대는 죄된 문화 속에 허우적대고 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청년대학생들이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을 경험하고 그 감격을 체험해야만 용서 기드온으로 일어설 수 있다. GKYM 비전 수련회가 바로 이런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우리도 함께 영적 전진을 해야 한다. 기

드온이 용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버지 요아사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물러 온 동네사람들에게 요아스는 의외의 반동을 보여 준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루느냐? 그를 위하여 다루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라’라 기드온이 바알신상을 찍어버릴 때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밤에 행동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의외로 기드온을 세워 준다. 우리의 1세가 이런 요아스가 될 때 우리의 차세대가 21세기의 기드온으로 일어설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 물려올 4000명의 청년대학생들을 위해

중보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또한 청년들이 적은 부담으로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실비용 230불에 책선 못 미치는 160불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부족한 재정은 1세대 중심으로 모금하게 된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 재정적으로 동참할 이 시대의 요아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국어) 4천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GKYM 대회는 미주 성서화 운동본부와 GAP 선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인규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5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남가주한인목사회 정관 제 7항 17조에 의거 제45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풍성한교회 (박효우목사사무) 213-503-3355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등록비 : 10불

회장, 수석부회장 후보 자격
 (1) 목사안수경력 10년 이상, 남가주지역목회 5년 이상
 (2) 공탁금: 회장 5,000불 수석부회장 3,000불

공천위원회 모임
 - 일 시 : 2011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남가주한인목사회(풍성한교회) 사무실

입후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1년 11월 9일(수) 오후 5시까지 남가주한인목사회(풍성한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이력서 2) 교단추천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추천인 30인 이상 5) 공탁금(개시어스책)

제출주소 :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ries Association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박효우 목사
 서기 김종태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황의영목사 초청 세미나 및 워크샵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는 손발운동의 창시자인 황의영목사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9시 - 11월 2일(수) 오전 12시

● 장 소 : 풍성한교회 (박효우목사사무) TEL, 213-503-3355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최초로 개발한 기독교 학습이론(The Echo-Way Learning Theory)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이상적인 삶을 주제로 다룬 특수한 훈련교재를 적용하도록 자체에 소개합니다.

A. 경각 바꾸기(사모방식 전환) / The Fleshy Life	B. 행동 바꾸기(신앙생활 계획) / The Blessed Life	C. 영성 바꾸기(신앙인격 성숙) / The Holy & Godly Life
회개받은 삶 / The Converted Life	회개받은 삶 / The Thankful Life	회개받은 삶 / The Worthy Life
회개받은 삶 / The Transformed Life	회개받은 삶 / The Reconciled Life	회개받은 삶 / The Glorious Life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Christian Faith
 신앙의 생활화 From Christian Faith to Innovated Life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총재 : 황의영 목사
 세계교회에 희망을 드립니다

지금 성도들의 품성과 인격을 향상시키고 성경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켜야 할 때입니다. 강단(설교)중심에서 양육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생활 개혁운동본부
 THE INTERNATIONAL HEADQUARTERS OF SBM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박효우 목사
 서기 김종태 목사

유동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제1회〉 마태복음 1장

유동근
한국온누리선교교회 목사



서론

신약의 처음 네 권의 복음서를 사복음서(The Four Gospels)라고 하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므로 각각 저자를 따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불리운다.

이는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가지신 네 가지 신분인 왕(마태), 종(마가), 인자(누가), 하나님(요한)이신에 따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록했다.

사복음서도 공관복음(The Synoptic Gospels)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의 각 부분을 묘사한 마태, 마가, 누가를 한 가지 종류로써 신성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한 요한복음과 구분하여 보기도 한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로서, 당시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공직요원은 마태 하나뿐이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는 직업이었으나 그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 새롭게 배우며 훈련받아 사도가 되었다. 그의 세관원으로서 장부에 적고 꼼꼼히 정리하는 공직의 사무 훈련은 후에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적합한 직업이었을 것이다. 마태의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임을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는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의 말이 자주 나온다.

요약 설명

1)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마태의 것과 누가의 것에 차이가 있다(눅 3:23-38 참조). 그 이유는 마태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쓴 것이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이방인 의사로서 이방인 복음을 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누가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였고(77세대-아래서 위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였다(42세대). 다윗부터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중심하다보니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부터 하였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중심으로 나가다보니 솔로몬

을 조상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이다(예수는 평민과 왕의 계보에 다 관련됨-온 인류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며 여자의 씨이시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이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약속을 가졌다. 다윗의 약속에서 그의 자손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는 타락한 족사의 예언에서부터 여자의 씨(창 3:15)로서, 아브라함의 씨이며, 다윗의 씨로 예언되었다. 그러므로 그 족보를 통하여 증명해야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창 22:18)이며, 다윗의 자손(삼하 7:12-13)으로 예언되었다.

2) 마태복음 1장의 예언을 보면 ‘낳고’, ‘낳고’는 많은데 죽음이 없다(창 5장의 족보와 비교). 이는 신약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히브리 족보에는 남자가 기록되었는데, 신약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들어가 있다. 특히 네 명의 부정한 여인과 이방인 여인도 들어있다-다말, 라합, 룻, 밧세바(우리야의 아내)도 그러하다. 한 명의 정결한 여인이 있다(마리아). 아름다운 세 이름, 아브라함, 다윗, 마리아의 이름은 믿음과 십자가의 고난 아래 충성스럽게 살며 순종하는 삶을 대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14, 14, 14의 세 세대가 있다. 14와 42의 숫자는 의미가 있다. 14는 10+4로서 피조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다. 42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의 수(히 3:9, 마 4:2, 왕상 19:8)이다. 민수가 33장 5-48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친 지점들이 42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점들을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였다. 계시록 13장 때는 대 환난의 시기 42개월이 있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

다윗(dwd)의 히브리어 이름은 다렛(d), 와우(w), 다렛(d)으로써 그 이름의 합한 수가 4+6+4=14이다. 즉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려 한 것이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말해주는 것은 a. 인간의 창조의 위대성(특히 다윗에게서) b. 위대성의 상실(바벨론으로 이거한데서) c. 위대성의 회복(스룹

벨의 예루살렘 귀환에서), 즉 사람의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이다.

42대의 족보 속에는 두 겹이 된 다윗의 족보가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이 빠져 버린 족보가 있다. 역대서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역대기를 참고하면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45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넷이 빠지고 하나가 반복해서 들어갔다. 저주받은 세 세대와 부적절한 한 세대를 빼고 다윗을 두 세대로 계산해서, 사십이(42)대가 된 것이다.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왕하 15:1, 13 보면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사요 그 아들은 아마사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아사랴=웃시야)로 되어있다. 즉 거룩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가 빠졌다. 이들은 이세벨의 우상과 관련된 왕들이다. 또 하나 11절의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여고냐가 빠졌다(대상 3:15-16 비교).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지고 바벨론 왕을 위해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임이 분명하다(16절). 마태의 기록은 분명히 예수님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하였다. 이 성육신(incarnation)의 역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의 역사이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출생하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18절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격이신 성령이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의 주권, 마리아라고 하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순종, 요셉의 의로움과 사려 깊음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성육신에 대하여 요한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표현했다(the Word became flesh, 요 1:1, 14).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후 인간의 몸을 일컫는 말이다(롬 7:18, 8:3, 요 3:14).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육에 참여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따라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배고픔과 굶주림, 피곤함을 다 느끼셨다. 그 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이다. 그러기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다.

4)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에 무언가가 더해졌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이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다.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이다’를 의미하며, 히브리어로는 존재(to be)이다. 그분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요 8:58).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만일 너희가 내가 그(I AM THAT I AM)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셨다. 구주(SAVIOR)란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를 말한다. 죄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야말로 구주인 것이다. 이 예수는 그러한 ‘여호와-구주’ 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이며(빌 2:9-10),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이름이다(요 1:12). 또한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며, 모든 사람이 부르기 위한 이름이다(롬 10:13).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로 오셨다!

사람들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었다. 임마누엘은 예수의 신성을 일컫는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

유동근 목사는

유 목사는 대전고과 충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美 퍼시픽 신학대학원(Th.M., D.D), 워싱턴 신학대학원(Th.D)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온누리선교회 담임목사, 美 퍼시픽 신학교 교수, 국제선교 신학, 신학연구원(IMC) 학장, 예장 국제선교연합총회 총회장, 글로벌부흥협의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등 신약 전권을 강해해 책으로 펴냈고 창세기, 모세5경, 여호수아·룻기, 사무엘상하, 전도서·아가사,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등도 출판했다.

창립33주년을 맞이한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가주노회 소속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조건:**
- 1)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이거나 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2) 이민 목회 경력이 3년 이상된 목사(부교역자 경력포함)
 - 3)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가능하신 분
 - 4) 연령은 39세 - 45세 사이

-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본인 및 가족사진
 - 3) 목회 비전서
 - 4) 목사 안수증명서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 6) 목사 2인 추천서
 - 7) 최근 설교 2편(CD)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출기한: 2011년 11월 4일(금)까지

제출하실 곳: 청빙위원회 앞
1821 Alta Vista Place, Camarillo, CA, 93012
혹은 E-Mail : ahnfamily1821@aol.com

문의: 임진태목사 (805)816-2373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1월 7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장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usa.com / ic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트턴)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메디케어

We know Medicare

현재 5 후원



하나 헬스 보험의 대표 DAVID KANG입니다.

저희 하나는 한인 시니어들의 올바른 건강보험의 선택을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시니어들이 찾기에 편안한 지역 사무실에서 시니어 건강플랜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각 시니어들의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라 적절한 플랜을 추천하고 있으며, 65세의 메디케어 자격을 갖추신 분을 위한 메디케어, 그리고 EXTRA HELP 플랜, MEDICARE SAVING PROGRAM의 신청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시니어 플랜만을 서비스 하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 당신의 메디케어 C(CHOICE) 플랜 선택!

2011년 메디케어 플랜은 2012년에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

캘리포니아 전역을 보장 하는 RPO 플랜이 2012년 1월 1일부터 혜택이 중단되었습니다. RPO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플랜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변경 하여야 합니다.

메디칼 플랜의 변화

2011년 10월 1일부터 1년 병원 방문회수가 7회로 제한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일 부터는 병원 방문 시 \$5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실 때 하루 \$100 최대 \$200 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응급실 방문 시 \$50을 지불 하여야 하며, 감기약 기침약 건강 보조 약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상기의 사항은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메디칼과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가 병원(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등)을 7회 방문 하고 나면 8회 방문부터 메디칼 혜택이 중단(잔여기간)되므로 나머지 메디케어 보험만으로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의료 보장 범위는 80%이므로 나머지 20% 부족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약의 본인 부담금도 \$1-\$3에서 \$3-\$5를 지불 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 의사 선생님 들 같은 경우 20% 부족분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병원에 입원 하거나 특수분야의 의사를 방문 하였을 경우는 본인이 지불 하여야 합니다.)

하나에서 추천하는 메디케어 C (CHOICE)보험

- PPO 플랜 기존의 캘리포니아 전역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각 지역에 따라 매달 보험료가 있는 플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LA 카운티 \$0, ORANGE 카운티 \$40, RIVERSIDE 카운티 \$106 등등 카운티에 따라 그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LA 카운티 거주민은 2011과 비슷한 보험혜택을 받게 되지만 다른 카운티 지역의 거주민은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새로운 플랜으로 변화를 주는 것을 권장 합니다.
● HMO 플랜은 각회사마다 그 특징이 매우 다양 합니다. 플랜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될 사항은 현재의 주치의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주치의를 항상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바뀌시는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인의 건강플랜의 에이전트의 전문성입니다. 메디케어 플랜은 일반 건강보험과는 매우 다른 건강 보험입니다. 즉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입니다. 반드시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셔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건강 보험회사 메디케어 HMO 플랜의 특징을 순서에 관계없이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플랜의 선택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1. PPO 플랜 은 의사와 병원의 선택이 보험 수혜자가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 와 병원을 보험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소정의 본인 부담금 병원 방문 시 \$15 전문의 방문 시 \$25 보험 시작 전 본인 부담금 \$300 등이 있습니다. 즉 비교되는 HMO 플랜 보다는 조금 부담이 있지만 병원이나 의사의 선택이 자유스럽습니다.
2. HMO 플랜 각 회사의 특징 중에서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 HMO 플랜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기존 플랜의 경우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치과치료가 되지만 이 플랜의 특징은 보험회사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약정된 금액만 지불하면 치료가 가능한 플랜입니다. (전체틀니 상 \$475, 하 \$475, 치아 신경치료 \$270 등 각 분야별로 정하여진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치료가 가능한 치과 치료 할인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한국 치과 선생님 들이 포함되어 있어 치과 치료가 용이 합니다. HMO 플랜이기 때문에 주치의를 정 하여야 하지만 많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선택이 아주 편안 합니다. 병원 방문 시 \$0, 각종건강검진 \$0 이며 병원 입원 시 하루 \$50씩 5일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처방약 보험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처방약 \$5 정도에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메디-메디의 경우 모든 약 \$3-\$5 구매) 본인 부담금이 매우 적은 프로그램입니다. (플랜은 각 카운티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HMO의 단점은 본인이 지정한 병원과 의사를 통해 의료 행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지정 된 병원과 의사를 통하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LA & ORANGE 카운티라고 지정이 되면 LA와 ORANGE 카운티내의 플랜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타주 뉴욕이나 다른 주의 친지 방문이나 여행 중에 의료 혜택이 필요 하신 경우 응급실진료 보장 3일 후에는 반드시 본인의서비스 지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대반만 이 플랜의 경우 타주에서도 여행이나 친지 방문 시 록 LA 와 ORANGE 카운티에서와 같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치의 방문 시 \$5 전문의 방문 시 \$10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4. HMO 플랜 중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공제하여 주는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의 특징은 본인의 소셜 연금에서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 중 \$75을 공제 합니다. 즉 부부라면 \$75*2*12=\$1800, 연간 소셜 연금 메디케어 공제금 \$1800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주치의나 전문의 방문 시에도 \$0 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단 약점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5. HMO 플랜 중 특별한 치료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도 있습니다. 신장 투석자 나 심장질환을 가진분 혹은 심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을 위한 전문 건강 보험도 있습니다.

많은 플랜중 본인이 가장 맞는 플랜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은 보험료가 없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은 대부분 처방약을 보장 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의 대부분은 해외 응급사항에 대한 보장을 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은 각 회사의 플랜에 따라 추가 혜택이 다릅니다.
예) 치과 플랜이 좋은 회사, 혹은 보청기를 보장하는 회사, 한방 침을 보장 하는 회사 등등 각 회사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 모든 것을 다 보장 하는 회사는 그 보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회사의 역사 그리고 회사의 규모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고객서비스 1-855-386-3088 Fax, 213-386-3992

※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약하시면 상담합니다.

LA 사무실



PRESIDENT: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3600 WILSHIRE BL #1620, LA, CA 90010

* DAVID KANG 이 월, 화, 수 근무합니다.

TORRANCE 사무실



DISTRICT MANAGER: SARA IM Lic.#0F07269

Tel. 310-702-7006

20695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목요일 근무합니다.



PRESIDENT: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2350 W SEPULVEDA BLVD #A,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금요일 근무합니다.

BUENA PARK 사무실



DISTRICT MANAGER: MI YOUNG HONG Lic.#0672051

Tel. 714-715-6345

6011 ORANGETHROPE AVE #A, BUENA PARK, CA 90620

저희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광고의 무단복제는 금합니다. 상기의 정보는 특정 상품의 광고가 아닌 시니어 건강보험에 전반적인 교육자료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미주성결대

“기도동역자 10만명이 학교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

미주성결대 총장으로 제2의 사역 시작한 류종길 목사



최근 미주성결대에 새로운 도약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류종길 목사가 3대 총장에 취임한 이후, 한국과 미국의 성결인들이 결집해 학교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건물에서 도서관도 신축되고 있고 강의실도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총장 및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학생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열어 신선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CEO 총장 류종길 목사가 있다. 신성한 학문의 전당에 웬 CEO 타령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단순한 CEO 총장이 아니라 예수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

해 학교를 발전시키려면 누군가 경영의 마인드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

기도동역자 10만명 모집 매달 1백불 후원자도 2백명 모집 학교 발전 위한 주춧돌 놓을 것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최근 미주성결대의 발전 일면을 살펴 보면 단순한 CEO 총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CEO 총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류 목사는 지난 미주성결교단 총회 때 이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 총장이 됐다. 서울신대에서 수년간 강의했고 교단 신학교 설립에도 노후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크게 어필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40년간 목회를 정리하고 한국 김해제일교회의 원로목사 및 선교목사로 미국에 와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총장이 되어서 목에 힘을 주라고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해 놓고 후임자에게 물려 주라고 하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총장에 취임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 왔다. 학교와 함께 할 동지들을 모으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동지들이었다. 기도동역자 카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며 학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다.

이 카드는 기도문 형태로 이뤄져 있어 그냥 한번 주옥 읽기만 하면 학교를 위한 기도가 된다. 5년동안 10만명 확보를 위해 오늘도 류 목사는 분주하다. 그는 물론, 그의 손자들부터 기도 회원이 되어서 매일같이 이 기도문을 읽고 있다.

이렇게 교단 산하 교회를 다니며 이 기도회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는

사부터 내어 놓기 시작했다. 총장 취임 당시부터 연봉 0불이 그의 다짐이었다. 미국에서 군목, 의사,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적지 않은 후원을 하고 있다.

그는 “내 남은 생애를 학교에 바칠 것”이라 말한다. “자녀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수십년 후 너희들이 이 대학을 볼 때 이 훌륭한 대학의 산과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이다’라고요.”

성결교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미주성결대는 이제 ABHE 인가를 향해 도약을 준비하며 향후 간혹 대학, 메디컬스쿨, 로스쿨까지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의 사람, 성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라”라는 교훈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이 비전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다.

그는 교수와 보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들에게 우리 학교를 추천한다”면서 “학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류 목사는 건국대 철학과, 서울신학대를 졸업했으며, 풀러신학대에서 목회학 박사, 미주성결대 신학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북부신학교를 개척하고 12년간 시무한 후, 산호세중앙교회 2년, 김해제일교회에서 10년을 시무했으며, 영남지역 바목협 회장, 김해기독교연합회장,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세계복음화문제 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인규 기자

UCS 무료 애프터스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나누어 줘야죠”



UCS대학에서 열리는 무료 애프터스쿨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

건강한 복음주의 목회자, 선교사를 양성하는 캘리포니아 UCS 대학교에 요즘 어린이들 목소리가 시끄럽다.

올림픽과 유나온이 만나는 곳의 1543 W. Olympic Bl.의 3층을 사용하고 있는 이 학교가 수업이 없는 낮 시간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애프터스쿨을 열었기 때문이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제를 도와 주고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성적 향상을 도와 주고 인성 교육도 함께 한다.

로스쿨에서 공부 중인 선생님이 어린이들의 학업을 맡고, 에스터 김 학장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인성 교육을 맡고 있다. 아브라함 최 총장은 이 둘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특이한 점은 모든 것이 무료라는 점. 교육비도 무료고, 심지어 간식비까지 무료다.

9월 6일 애프터스쿨 개강을 앞두고 한인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조중학교에서 전담지를 나누어 주자 문의가 빗발쳤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간상의 문제로 인해 12명의 학생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김 학장은 “좀더 공간만 있다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안타까워 한다. 그녀는 “우리가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한인 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에스터 김 학장과 아브라함 최 총장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고 배운다. 그 배운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현실에 처한 한인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 애프터스쿨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의 교육 철학대로 UCS 동문들은 전세계 각지에서 나눔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무료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위한 펀드도 동문들이 마련했다.

이들은 UCS신학교, LA조은아침선교회, 광저우조은아침선교회, LA한우리교회, 요셉선교회, 미국에수교장로회 총회 등 동문들이 세운 단체들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며 동시에 섬김을 펼치고 있다.

한 예로 조은아침선교회는 8년째 매주 수요일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도시락 50여개를 홀리스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UCS가 뜻과 소망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100% 장학금까지 주며 교육시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의) 213-388-5992

이인규 기자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 ESL 프로그램
- 한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듣는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험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Customized Solution

Laservision World는 20년간 쌓은 전문 음향, 영상, 조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Yamaha, Sony, Sanyo, Digico, Barco, EAW, JBL, Da-Lite, Martin, Robe 등 200여 개의 공식 딜러십 보유 및 장비판매를 하고 있으며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월 실무 세미나를 실시 하고 있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 해 주십시오.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레이저비전의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계획 또는 진행하시고 계시다면 멀티미디어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오랜 경험과 실력의 저희 Laservision World를 만나 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환경과 필요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예산에 맞는 Customized solution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의 경험과 우수성이 여러분의 멀티미디어 활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털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가 제공해 드리는 또 다른 서비스



- Pro Audio / Video / Lighting Online Store : www.avlgear.com
- 우리들의 문화 네트워크 Culture and Event Network : www.wori.com

UNIVERSAL, SHURE, SONY, SANYO, SHURE, CHIKISTIE, EDIROL, DIGICO, AVIOM, LEVITON, Martin, JVC, BOSE, TASCAM, PANASONIC, EXTRON, SHARP, SENNHEISER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국제기독교유아교육대학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11월 7일
 (2주마다 입학가능)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 www.icecusa.com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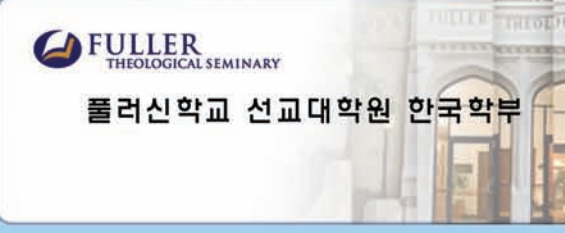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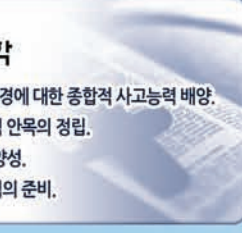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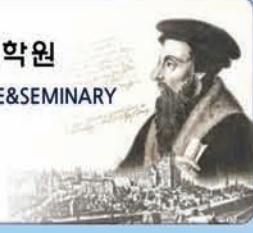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543 W. Olympic Blvd. Suite 535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9-118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NK 세미나

Immanuel Baptist Church
 68-10 31st Ave. Woodside, NY 11377

11. 3 (목) 4 pm-9:30 pm
 11. 4-5 (금, 토) 9 am-9:30 pm

회비 \$80 (식사 포함), 당일등록 \$100
 동시 통역

예배 인도 고희원 & 부흥한국
협찬 가스펠 헬로쉽 / 318 파트너즈



오대원 목사 (David E. Ross)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
 YWAM-AIIM 안디옥훈련원 대표



고형원 전도사
 부흥한국 공동 대표,
 작곡가, 예배감독

강사 오대원 목사 (David E. Ross)
 배기찬 (전 동북아 정책조정 비서관, 뉴코리아 센터대표)
 Peter Yang (Director of BVC in Beijing China)
 Steve Kim (318 Partners)
 C. K (NK 사역)

연락처 C: 646-807-9157
 www.facebook.com/nkseminar
 nkseminar@gmail.com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제4차 미주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



**“이 시대 젊은이들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는 현장!”
“더 높은 부르심앞에 서는 현장!”**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4000명

등록방법 : 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등록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Early Bird : 11월 7일까지 \$160

00:00.05
00:00.04
00:00.03
00:00.02
00:00.01

(단체등록시 목회자 할인혜택)

1차 : 11월 30일까지 \$180

2차 : 12월 11일까지 \$200

3차 : 12월 20일까지 \$240

통하는 목회 통큰목회

청년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사역자들만을 위한 GKYM 속의 작은 컨퍼런스!!! 지금 등록하십시오

www.gkymwest.org

Dave Gibbons Newsong Church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Ja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Francis Chan** Author of Crazy Love **Darryl Smith** Student Venture **이용규**선교사 Missionary to Mongolia **안찬호**선교사 Missionary to Kenya **이용희**교수 Esther Prayer Movement **한철호**선교사 Mission Korea Partners **손인식**목사 Bethel Korean Church



자세대선교자원개발을 위한 GKYM선교대회후원안내

하나님께서 미주에 청년학생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해 3000명, 올해는 4000명의 청년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선교자원인 이들이 선교대회에 적은 부담으로 참여하도록 개별 등록금 이외에 1인당 70불이 더 필요합니다.

이일을 위해 차세대선교자원을 위한 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세워지도록 1구좌 70불씩 4000구좌가 채워지도록 힘과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이들은 장차 한국 주도의 세계선교의 장을 열어가갈 선교세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명예대회장 대표대회장 대회장/강사	박희민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손인식목사(베델한인교회) 고승수목사(아들다움교회) 김홍수목사(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박성규목사(중원선교교회) 박성환목사(주님세움교회) 김동현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김동진목사(KCCUSA) 김지성목사(글로벌선교교회) 이상우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한기형감독(나성동산교회) 신승훈목사(주님의 영광교회) 이성환목사(드림교회) 임홍수목사(토론토큰빛교회) 최영주목사(에브리데이교회)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준비위원장 실행위원장 조직위원장 트랙십무책임	Sam Koh 목사(Hillside Ministry of LACPC) 권태산목사(하나님의 꿈의 교회) 김정환선교사(SON Ministry) 박문환목사(아가페선교교회)	송병주목사(선한침지교회) 이광진교수(풀러선교대학원) 조현영목사(큰빛갈리교회) 최경우목사(포감사선교교회)

주관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 KCC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서화운동본부 / GAP(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 원동선교회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 CGNTV / CTS / KCMUSA / 중앙일보
한국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미주크리스찬신문 / 크리스찬뉴스위크
크리스찬투데이 / 기독교일보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vision@gmail.com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 | | | | |
|--|---|---|--|
| <p>갈릴리선교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p> <p>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hurch.com</p> | <p>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p> <p>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p> | <p>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화철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p> <p>904 E D St, Ontario, CA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p> | <p>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p> <p>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p> <p>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p> |
|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 <p>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p> <p>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p> | <p>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용 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월-목)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p> <p>4063 Ingraham St LA, CA 90005 (필사미크로중학교강당)
T. (213) 550-7377 / www.lahopecchurch.com</p> | <p>LA 만나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p> |
| <p>남가주광영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수) 오전 5:30, 2부: 오전 6:30
(목) 오전 10:30 (토) 오전 6:30</p> <p>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p> | <p>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p> <p>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p> | <p>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p> <p>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p> | <p>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p> <p>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p> |
| <p>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p> <p>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p> | <p>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p> <p>4055 Schaefer Ave., Chino, CA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p> | <p>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명열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p> <p>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p> | <p>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p> <p>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p> |
| <p>돌로스교회
담임: 서보현 목사</p> <p>-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예배 9시, 2부 11시 금요성경(화-토): 오후 8:00
중고등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EM예배: 오후 6:00</p> <p>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p> | <p>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p> <p>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p> | <p>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p> <p>1069 S. La Brea Ave. LA, CA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p> | <p>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p> <p>1부예배 오전 8:45 영어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p> <p>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c.org</p> |
| <p>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p> <p>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p> | <p>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p> <p>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 <p>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p> <p>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p> | <p>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p> <p>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우터튼 47 Crocker St)
1부가례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p> <p>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p> |
| <p>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p> | <p>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p> <p>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p> | <p>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현오 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p> | <p>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p> <p>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p> |
| <p>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10시</p> <p>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 <p>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p> <p>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p> | <p>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용성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p> |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p> <p>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p> |
| <p>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p> <p>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p> | <p>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 <p>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p> | <p>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청년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www.kccroc.com</p> |
| <p>요셉선교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90006
T. (213) 245-4090</p> | <p>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 <p>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p> | <p>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30(토)</p> <p>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p> |
| <p>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20</p> <p>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p> |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 <p>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p> <p>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p> | <p>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토)</p> <p>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p> |
| <p>충현선교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p> | <p>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p> | <p>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p> <p>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포우업)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점오 12:30(분) 금요일예배 오후 8:00</p> <p>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p> | <p>SAM care international
대표: 박세록 장로</p> <p>"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p> <p>1309W.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p> |

자신의 십계명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지난 주에 성경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암송하는 말씀은 시편51편과 십계명입니다. 2개월 이상 암송하신 분들이 나와서 또박 또박 암송하는 것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속 깊은 곳의 기쁨으로 솟아 올랐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미주에 오신 교포들과 미국백성들이 사는 길은 십계명의 회복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는 길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나의 길을 갑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십계명 강해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한 후에 정말 십계명은 성경중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에 멈추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체질화 되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나의 십계명을 한번쯤 적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링컨과 록펠러는 성경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 십계명을 적어서 그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평소 가졌던 신앙의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 링컨의 신앙 십계명
1.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2.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3.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4.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5.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

하며 감사할 것이다. 6.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7.나는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 드릴 것이다. 8.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9.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10.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 록펠러의 신앙 십계명
1.하나님을 진아비지로 여겨라. 2.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4.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5.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십일조 주머니로 하라. 6.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7.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8.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써 도우라. 9.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10.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신 성경의 십계명(출20장)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자신의 말로 신앙 십계명을 구체적인 후회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교회에서는 지도자인 담임목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간혹 담임목사에 대한 이런 저런 말들이 돌기 쉬운데 우리는 담임목사직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담임목사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 교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쉬운데 그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담임목사의 직능은 설교뿐 아니라 교회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로서 보이는 지상 교회의 실질적 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담임목사의 위치는 교인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의 사자란 헬라어로 토양겔라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오른손에 붙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소중이 여기시며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이 이러하다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평가도

의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고 육한흠 목사님의 담임 목사에 대한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제목은 "담임목사, 그는 기도해 줘야 할 사람입니다"라는 글입니다.

담임목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꾼 너무나 소중한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 때문에 자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는 몇 사람의 목사가 아닙니다. 특정한 그룹의 목사가 아닙니다. 전 교회의 목사입니다. 담임목사는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자리입니다.

간교한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고 울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는 정말 기뻐해 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밤낮 쫓기는 자리입니다. 한주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설교자로서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달려오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는 신뢰를 못 받으면 죽는 자리입니다. 신뢰는 리더십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담임목사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고 그가 승리해야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중보기도에 주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 조건입니다. 그 절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지도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주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영적으로 최선봉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방패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서 마귀의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지도자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형제애는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한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저희 집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아메리칸 에스키모종으로 체구가 작고 날렵하며 성격은 조금 까칠한 그런 개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골든 리트리버 종으로 체구가 상당히 큰 데 반해서 행동은 좀 느리며 성격은 상당히 온순한 개입니다. 이 두 녀석들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밤에 잘 때도 같은 케이지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눈뜨는 순간부터 마당에서 하루종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녀석들은 체구나 성격이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같습니다. 두 놈을 기르면서 재미있는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녀석을 데리고 산책을 하노라면 서로를 쫓기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걷는

것 같지만 녀석들은 서로의 존재를 자주 확인합니다. 한번은 길을 걷다가 훈련삼아 한 놈을 나무에 묶어 두고 다른 놈만 데리고 훌쩍 가 보았습니다. 당연히 나무에 묶인 녀석은 혼자만 남았음에 놀라서 킁킁거립니다. 그러자 저와 함께 걷는 다른 녀석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 보며 나무에 묶인 녀석을 향해 경경 짖으면서 그놈에게로 달려 가려 합니다.

사람에 비해서 지능이나 모든 것이 열등한 개들도 배경, 조건, 성격, 체구 등 모든 것이 아주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제애를 나누는 것에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나누는 진한 형제애에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도 여러 이유로 남남보다 못한 관계로 갈 등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진한 형제애를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공존과 상생의 이치를 공통점에서 찾으려 합니다.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존과 상생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학설을 제시합니다. 그런 사회학적 접근으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당연히 잘 될 수 있는 조건보다 잘 안 되는 조건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공통점으로 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야말로 백인백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는 말들이 분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당연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진한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저희 개들을 통해서 중요한 방법 하나를 터득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길수록 존재감의 깊이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 서로의 존재감이 인정되며,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형제의 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워 보았습니다. 사실 진한 형제애를 품으려면 초대교회를 배제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초대교회야말로 공존과 상생의 조건에는 결코 부합될 수 없는 사회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함께 했습니다.

우리로 함께하는 시간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진한 형제애가 생겼을 경험될 것입니다. 쫓겨주고 보살펴주는 필연적인 정이 듬뿍 생성될 것입니다.

불 받아라



조인수 목사
씨네사이드교회

'불 받아라'라는 말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불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의 의미도 잘 모르고 불을 받았다고 따라 다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불의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또한 불의 역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불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불 대신에 임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불이라는 말이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 본인이 확실히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불 받아라'라는 말조차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낯선 말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가슴

을 뜨겁게 하면 열정을 품고 끝까지 주의 사명자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다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뜨거운가가 중요합니다. 가슴에 무언가 뜨거움이 있다면 성령의 불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거나 식으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쇠퇴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개인과 교회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개인이나 교회는 의식에 치중하게 되어 형식을 쫓아 갑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교회의 존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원장 정서명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신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D/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잠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2월 1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 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턱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일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사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을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 기독교보 애독자 특별할인 -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학교 선반 수천 개를 한꺼번에 매입
조달서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질과 가격을 모두 만족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323)855-5687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213)200-3050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등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금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들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 빵 < 들어요!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싱크대, 욕조, 반기 등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 교체
▶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각종 Faucets, 디스펜서,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역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LIC # 531243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방수 · 루핑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세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제작(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은들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50개 주 향해 찬양선교 떠나는 70대 장로

클라리넷 연주자 이영복 장로 “3년 계획... 놀라운 일 펼쳐실 주님을 기대”

미주 50개주를 자동차로 횡단하면서 찬양 선교를 펼치려고 준비 중인 70대 장로가 있어 화제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이영복 원로 장로는 얼마 전에 미 전역을 다닐 중형밴을 마련했고, 뒤 화물칸에는 침대와 여러 가지 짐을 싣기에 적당한 실내 방을 인테리어를 하고 건강체크 도구를 준비를 마쳤다.

1960년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와 온갖 고된 일을 하던 중, 카센터에서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된 것을 계기로 지인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영복 장로. 이제는 그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며 클라리넷을 연주하러가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떠난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서라벌 예대 전국 5대 음악콩쿨대회에서 입상했고 해병군악대 4기생으로 군복무를 했으며, 미 8군에서 수년간 전문 연주자로 활동했다. 1969년에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미국에 이민을 왔다. 1976년에 몸이 아파서 산 기도에도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찬양과 간증을 시작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것은 카센터에서 손잡이를 보던 중 밴보를 잘못 열

어서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돼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서 크리스천이 됐죠.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일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클라리넷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것이 큰

큰 화상 입으며 주님 만나 이젠 여생을 주님께 헌신코자

축복이죠.”
15여년 전 그는 악기 연주CD를 만들 기회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는 전도사가 어느 기도모임에 가서 이에 대한 간증을 했더니 어떤 독자가 2만 불의 현금을 CD 제작에 써달라며 쾌척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때 당시 4000장의 CD를 제작하고, 최근 미국 투어에서 선교기금 마련에 쓰기 위해 1200장을 더 만들었다.

이영복 장로가 목격지로 한 주는 50개주로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한

주에 한 달씩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11월 추수감사절을 마지막까지 아내와 함께 출발을 준비 중으로, 요즘은 새벽에 몇 번씩 잠이 깬다고 한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이 장로는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은퇴하고 원로장로로 아직까지 주일 예배 전 10분 동안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전 일찍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다. 요즘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좋아하는 곡을 청하기도 한다.

건강하지 않으면 감히 미주 50개 주 횡단을 생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아내가 같은 마음으로 동의해 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아들의 가정도 부모의 나이를 고려해 걱정하며 꼭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오래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기에 믿음으로 따르겠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이영복 장로가 횡단에 타고 갈 밴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횡단에서는 이민 교회 및 미국 교회를 돌며 찬양 연주 및 여대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복 장로의 찬양 사역에는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남성수 목사가 지어준 테일러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테일러는 히브리어로 찬양이란

뜻으로 이번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붙여졌다고 한다.

그는 또 지난 1969년에 미국에 이민 온 이래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또한 놀라운 일이라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는다.

“그동안 건강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악기를 집에

서 못 부니 앨범을 제작할 때 악기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11년 동안 새벽 1시 반에 나와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도 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썼으면 합니다. 미국 횡단을 마치면 언젠가 한국에 들어가서 찬양 간증집회를 여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토마스 맹 기자

로스오소스고교 수학클럽 4년간 커뮤니티 봉사 인정받아

10월 21일 열린 “한국 문화의 밤”에서 인랜드 지역 명문 로스오소스 고등학교의 수학클럽이 지역 사회의 칭찬을 받았다.

이 행사는 랜초쿠카몽가 시청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다민족 2세들을 위한 배움의 축제로서, 로스오소스고등학교 크리스 홀리스터 교장, 치노밸리통합교육구의 제임스 나 회장, 어번턴트리빙처의 케이트 퍼듀 목사, 사회 봉사 단체인 라이트하우스의 샬리 헤셀틴 등 인종을 초월해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클럽회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학클럽은 커뮤니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학습을 도와 주고 있으며 기독 한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그 열기가 뜨겁기로 유명하다.

이 행사에서 클럽 회원들에게 단체장들로부터 봉사 활동 증서가 전달됐다.

지역 사회 2세들의 지도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행사인만큼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증서 수여 이후에는 대금, 가야금, 부채춤, 장고춤, 사물놀이 등과 한국 인간문화재 이병삼 선생의 대금 특별 국악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에 국악의 아름다움이 선사됐다.

행사 후 이어진 저녁식사는 학부모들이 각국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으며 약 2백여명이 식탁을 즐겼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 지난 20년간 2세 교육에 힘써 온 박모세 목사가 이 수학클럽 지도를 맡고 있다. 그는 “우리 한인 꿈나무들의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해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오소스 고교의 학부모회장 이인규 기자

기독교영화의 대향연 환태평양 기독교영화제 열린다

제4회 환태평양 기독교영화제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AT&T센터에서 그 막을 올린다.

28일 오후 7시에 상영되는 Snow Men과 The Forgotten Bag은 선착순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종일 이벤트에서는 영화 상영, 라이브 콘서트, 레드카펫 행사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돼 있다. 이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이번 영화제의 특별게스트로는 대표적 기독교영화로 꼽힌 “The Passion of the Christ”의 프로듀서 스테판 맥이버티와 “Snow Men”의 프로듀서 존 세퍼드가 참석한다.

이 행사는 이승종 목사가 대표로 있는 GMT(Global Media & IT)가 영상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4년 전 시작했다.

한인이 중심이 된 가운데 미주 최초의 한인 기독교영화제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한인은 물론 주류사회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유능한 기독교영화인들의 등장 무대

이런 영화제의 포스터

가 됨은 물론 훌륭한 작품에 대한 사색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사가 준비되는 데에는 역시 한인들의 참여도 뜨거웠다. 그랜드 자동차, 등 한인 기업들이 후원했을 뿐 아니라 코너스교회, 포도원교회, 예수마음교회 등 한인교회들도 이에 참여했다.

김영신 기자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AT&T, VERIZON 가정용 전화 완전 대체!

새고객 보상 프로그램* 2011년 10월 31일까지

집전화 마지막 기회!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최대 \$100 드려요!

30일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립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왜 아이토크비비 인가?

1. 저렴한 통화요금
2. 무제한 통화
3. 발신자 표시, 착신 전환, 다양한 부가 서비스 무료!
4. 친절하고 편리한 한국어 고객 서비스
5. 100%고객 만족을 위한 30일 환불 보장 제도

무료! iTalkGlobal 마이토크글로벌 \$500

아이토크글로벌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24.99/월

● 미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기타 수수료 일체 포함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 인랜드지역 사업권 관리가 용이한 분 또는 기존 매점/신규 아이토크를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 703.349.7544

등록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새고객 보상제도-1년 계약 무한 가입자에 한함입니다. 계약기간내에 서비스를 약정하신 경우 \$69.99의 유선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 및 보상 받으신 후 금액이 환산되어 부과 됩니다. 고객 보상금액은 아이토크비비 가입하신 플랜에 따라 최대 \$100까지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은 기존 전화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신 후에 한합니다. ** 무료 마이코리아넘버 마이코리아넘버를 이용해 유선 사용까지 가능. 유선요금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보상제도의 최종 약서는 iTalk Global Communication, Inc. 에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이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약정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부과됩니다. 무제한 플랜이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동 미국 해외 영토로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의 관련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2011 Equus
\$739 + tax
T.D.O \$2,999
O.A.C 3YR/36K (STK#041922)



2012 Genesis
\$399 + tax
T.D.O \$3,499
O.A.C 3YR/36K (STK#167271)



에쿠스, 제네시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에쿠스 리무진으로 달려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2012 Accent
\$169 + tax
T.D.O \$1,999
O.A.C 3YR/36K (STK#116397)



2012 Veloster M/T
\$179 + tax
T.D.O \$1,999
O.A.C 3YR/36K (STK#022103)

HYUNDAI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 이자율 2.49%

다른 딜러나 은행에서 용자 거절 되신 분
일정의 비용만 내시면 100% 용자해드립니다. 문의: 제니 김

'10 DODGE AVENGER SXT	(P108045/108045)	\$16,888
'10 VOLKSWAGEN NEW BEETLE	(P008693/008693)	\$16,908
'08 TOYOTA CAMRY LE	(142262A/045338)	\$17,888
'08 HONDA ACCORD	(033780A/098353)	\$17,936
'10 VOLKSWAGEN JETTA S	(P082563/082563)	\$18,888
'11 HYUNDAI SONATA GLS	(P049785/049785)	\$18,888
'11 CHEVROLET MALIBU	(P100296/100296)	\$18,964
'10 CHRYSLER SEBRING TOUR	(P123861/123861)	\$18,998
'08 CHEVROLET SILVERADO LT	(259499A/140734)	\$19,963
'11 KIA SORENTO LX	(P001565/001565)	\$19,987
'10 HYUNDAI SANTA FE GLS	(P336562/336562)	\$20,888
'09 HYUNDAI GENESIS 3.8L	(P021782/021782)	\$24,941

'09 HYUNDAI ACCENT GLS	CERTIFIED (U373093)	\$11,299
'10 HYUNDAI ACCENT GLS	CERTIFIED, SILVER, 4DR (U419990)	\$11,399
'03 TOYOTA AVALON SDN XL	4DR, BUCKET SEATS (U281813)	\$11,549
'09 KIA SPECTRA	(5658962)	\$11,899
'10 HYUNDAI ACCENT 2 DCP	CERTIFIED, SILVER (U169045)	\$12,999
'10 KIA RIO	(6687779)	\$13,302
'08 HYUNDAI ELANTRA GLS	CERTIFIED, SUNROOF (80370153)	\$13,499
'09 HYUNDAI ELANTRA SDN	CERTIFIED, 4 DR, AUTO GLS S (U720008)	\$14,789
'08 SCION tC	(80262589)	\$14,899
'10 KIA FORTE	LOW MILES (5129865)	\$15,789
'08 HONDA FIT 5 DR. NB	AUTO SPORT PURP (S014919)	\$15,899
'10 HYUNDAI ELANTRA GLS	CERTIFIED, SILVER (U835311)	\$15,995

상기 모든 모델은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진심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 ~ 9:00pm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월-금 7:30am ~ 6:00pm
▶ 토 8:00am ~ 2:00pm

남녀 영업사원 모집 문의: 찰리정메니저

한국인 상담 제니 김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Zoom-Zoom

전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형 2011 MAZDA 3

\$187 + TAX
Stock No. 490055

스페셜 **0%**

T.D.O. \$2,599
48month, 12K mile/yr O.A.C. with your 1st payment and license fee plus offer ends close of 11/31/11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한국인 상담 제니 김 (310)749-7599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

2011 MAZDA 5
편리한 미니밴

2011 CX-7
실용적인 SUV

스페셜 **0%**

2011 CX-9
3석자리 SUV

스페셜 **0%**

2011 MIATA
여름 정취를 스포츠카